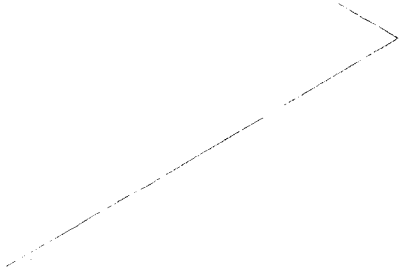


한국의 환경운동의 역사와 현황



80년대 후반이래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 그 반영이기도 하지만 사회운동부문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과 성장을 가져온 것이 바로 환경운동과 환경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의 대부분이 87~88년 이래에 창립된 약 1백여개의 민간환경단체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주요한 활동 내용으로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환경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여타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도 이만한 숫자의 환경운동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이렇게 몇년사이에 수적으로도 급속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공해문제가 최초로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2년 울산에서 공단지역의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주민들의 투쟁이 전개된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곧이어 같은 지역인 온산에서 한국의 이따이따이병으로 불렸던 집단괴질이 발생한 사건은 공해문제를 이 땅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간환경운동의 역사는 60년대에 조국의 근대화를 내걸고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공해문제와 이에 대항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존권투쟁이라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유 병 진 /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연구원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아직 인식되고 있지 못했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였던 60~70년대에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사치일 수 밖에 없었다. 이 결과 80년대 초에 들어 공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다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사 문제화되더라도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부분적인 투쟁으로 끝나곤 했다.

이렇게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문제에 대해 피해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존권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시기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첫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중반이후 사람들의 생활상의 전반적인 물질적 조건이 향상되고, 또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면서 한국에서의 환경운동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공해배출업소나 환경오염시설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봉쇄하는 주민들의 운동이 일반화된 것이다. 83년 목포지역주민의 식수원인 영산호주변에 진로주정공장이 들어서게 되자 거의 전 목포시민들이 참여하여 공장건설을 취소시켰던 사례, 89년 7월부터 전개된 울산지역의 이산화티타늄공장입주반대투쟁, 90년 11월 안면도 핵폐기장 설치반대투쟁, 그리고 연이어 91년 과학기술처가 전국의 6개 지역을 핵폐기장 최종후보지로 확정하자 발표도 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던 사례, 91년에 결성되어 지금도 그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김포매립장대책위원회 같은 사례가 그것이다.

이 시기의 운동은 공해피해에 대해 즉자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던 그간의 형태와는 달리 깨끗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그리고 쾌적한 휴식공간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화되고, 환경운동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91년 3월에 일어난 대구폐놀사건이다.

이 사건은 환경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선 환경문제에 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고양되면서 전국 각지역에서 수많은 환경단체가 결성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공해물질배출에 관한 기업의 생각을 바꾸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두산그룹의 회장이 물러나게 되었는데, 자고로 대기업의 회장을 물러나게 한 것은 환경문제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위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폐놀배출 당사자였던 두산그룹은 비록 몇달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생산하는 전제품에 관한 불매운동이라는 형태로 국민들에 의해 철저한 응징을 받음으로써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환경운동에 끼친 피해도 사실은 적지 않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두산이 인체에 극히 해로운 폐놀을 낙동강에 몰래 버린 사건」으로 알려졌고, 지금도 그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는 「폐놀폐수의 누출사고」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따라서 문제는 두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숱한 생산업체에서 낙동강으로, 해안으로 독성폐수가 마구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또 이런 독성물질을 그토록 허술하게 취급하는 현실 등 구조적인 모순을 짚어내어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채, OB맥주를 땅바닥에 붓고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두산이라는 한 기업을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 응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결과 폐놀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석하던 바로 다음달인 4월에도 울산의 유공아크화학에서는 여전히 허용기준치의 40배가 넘는 폐놀을 불법방류하다가 적발되고 있고, 역시 같은 시점에 효성금속은 pH 13이상의 강알칼리성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보내다가 적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93년 현재로도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는

“

무엇보다도 환경운동의 이념이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돗물이나 쓰레기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거나, 보다 근본적인 생태학적, 전지구적 문제로는 아직 시각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

폐놀의 총량은 사실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폐놀사건 당시에는 단지 다량의 폐놀이 한꺼번에 흘러들어오고, 이것이 소득을 위해 급하게 풀어 넣었던 염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클로로페놀이 생성됨으로써 심한 악취를 일으켰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렸을 뿐인 것이다.

어쨌든 이 폐놀사건을 전후로 각지역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5대강의 수질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그 결과 전국 각 지역에서 수많은 환경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폐놀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환경운동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수적인 변화보다도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의 정착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YMCA나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아니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환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즉 그간 전개되어온 공해추방운동은 공해피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피해받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의 의의를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위, 투쟁 등의 방법을 통해 공해피해문제를 사회적 이슈화시켜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70~80년대를 거치오면서 공해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한국의 환경운동을 이끌어왔던 이러한 운동은 점점 대중적인 지지와 기반을 상실

하기 시작했다. 투쟁과 반대만으로는 더이상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등장한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은 전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의식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접근한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한 운동이전에 인류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서의 환경문제라는 시각하에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생명운동 내지는 공동체운동의 전개를 들 수 있다.

이는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가 사회구조적 모순뿐만 아니라 현대의 산업문명이 가져온 왜곡된 세계관과 생활양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반생태적이고 반 공동체적인 현대의 산업문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생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물론 환경운동이 기본적으로 녹색운동으로서의 이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주로 90년대 들어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가톨릭농민회, 한살림운동, 우리말 살리기 운동, 불교사회교육원, 광주의 광록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이 다른 사회운동에 비해 역사가 짧음에 비해 두드러진 활동을 해오고 또 1백여개의 민간환경단체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내실있는 환경운동인가하는 점에서는 되짚어볼 점이 많다.

우선 계속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약 3분의 1이 넘는 30~40개의 단체가 이름만 걸어놓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런 활동도 없는 소위 '유령단체'화한 실정이다. 실제로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30~40여개에 불과하다.

또 회원수나 재정, 그리고 실무자 수에 있어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평균적으로 실무자 2~3사람, 한달에 2~3백만원의 돈으로 꾸려가고 있는 현실



은 아직 환경운동이 동호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환경단체는 활동가, 정보, 자금 등의 부족으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돈과 사람이 많아야 운동을 잘한다는 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들을 실현할 때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런 규모의 영세성은 환경운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환경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시민들과의 결합 등 그 발전정도로 볼 때 운동의 초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여전히 환경오염의 현상고발이나 감시 등 반대운동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숨기려는 공해실태를 폭로하고 환경을 무시하는 갖가지 정책을 질타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적하고 그 해결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경운동의 이념이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돗물이나 쓰레기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거나, 보다 근본적인 생태학적, 전지구적 문제로는 아직 시각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는 환경운동에 지구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요구한다.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등 지구 환경문제는 결코 한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미 국제협약 등의 형태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시민단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우유팩수거운동이나 모신문사에 의해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펼쳐진 쓰레기줄이기운동은 그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라는 환경운동의 캐치프레이즈와는 달리 '생각도 지역적으로, 실천도 지역적으로'라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최근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몇 년 만에 걸친 준비끝에 민간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를 설립한 사례나 이미 민간연구소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달환경연구소, 그리고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환경정책대안 산출과 자원재활용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등의 활동, 그리고 환경운동의 이념으로 새롭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명공동체운동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